

사료내 항생제 첨가금지에 따른 대처방안

육계 사료용 항생제 사용금지에 대한 대책은?



김진형 전무
(주)카길애그리퓨리나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사료 내 가축 성장촉진용 항생제 첨가 금지로 인하여 축산업계는 생산성 저하 및 질병 발생 등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성장 촉진용 항생제(AGP : Antibiotic Growth Promoters)는 성장촉진, 유해균 억제, 질병예방, 사육환경 개선 등을 목적으로 예방 수준으로 사료 내 첨가 급여하는 항생제를 말한다. 이는 1950년대 소규모, 방목 위주의 축산이 집약화, 전업화 되는 과정에서 도입이 되었으며, 오늘날 집약적, 기업적 축산으로 대규모화되는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올해 하반기부터 배합사료 내 항생제 사용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생산자, 정부, 축산관련 업계가 모두 함께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축산업 경쟁력 제고 및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사업'의 일환으로 배합사료 제조용 항생제 허가 품목을 점진적으로 감축해 왔다. 초기 44종에서 2005년 16종을 금지했고, 2009년에 9종, 그리고 2011년 7월부터는 배합사료 내 모든 항생제 첨가가 금지된다.

정부의 동물용 항생제 사용 저감 정책은 지속 가능한 축산업과 국민건강, 동물복지, 환경적 측면을 고려한 것이지만, 축산업계는 사료 내 항생제 사용금지 이후 나타날 상황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미 유럽에서는 사료내 항생제 금지가 시행되고 있으나 철저한 환경관리와 사양, 영양 관리를 통하여 장을 건강하게 관리하고 있어서 큰 피해를 보이지는 않고 있어서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면서 연구해야 할 부분이다.

사료내 항생제 첨가금지에 따른 대처방안

〈표 1〉 성장 촉진용 항생물질의 금지 현황

일자	단계	금지 성장 촉진용 항생제
2005년 5월	28/44(16 AGPs)	Oxytetracycline HCl, Sulfamethazine, Sulfadimethoxine Kitasamycin, Thiopeptide, Bicozamycin, Hygromycin B Destomycin A, Nystatin, Erythromycin, Decoquinat Robenidine HCl, Carbadox, Amprolium, Ethopabate Sulfaquinoxaline, Halofuginone, Nosiheptide, Nicarbazin Zoalene, Methylbenzoquate, Ormetoprim, Ronidazole Morantel citrate, Cyromazine, Roxarsone, Sedecamycin Ivermectin
2009년 1월	7/16(9 AGPs)	Chlortetracycline, Oxytetracycline NH4+, Bacitracin Zn Colistin Sulfate, Neomycin sulfate, Lincomycin HCl Penicillin
2011년 7월	9/9(0 AGP)	Enramycin, Tyrosine, Virginiamycin Bacitracin methylenedisalicylate, Bambermycin Tiamulin, Apramycin, Avilamycin, Sulfathiazole 제외 ; Salinomycin, Monensin sodium, Lasalocid sodium Narasin, Maduramycin ammonium, Semduramicin Clopidol, Fenbendazole, Diclazuril

항생제 첨가가 금지되면 성장 저하나 질병 발생 등 다양한 종류의 생산성 하락이 나타날 수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 같은 정부 정책에 따라 이미 우리보다 먼저 항생제 사용 금지 조치를 시행한 유럽에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항생제의 자가 사용이 늘어날 것이란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생각되며, 관련 업계 및 축산농가 스스로가 변화된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사료용 항생제 사용이 금지되면 양계산업에서 가장 많은 피해가 우려되는 문제는 사료섭취량이 줄면서 증체가 더뎠고, 당연히 사료요구율이 올라가며 괴사성 장염(NE)

의 질병 발생이 증가하면서 폐사율이 높아지는 심각한 국면을 맞게 될 것이다.

이는 콕시듐 발생과 함께 더욱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아직은 다행스러운 것은 콕시듐제는 사료 내 첨가가 금지되지 않았지만 콕시듐제 하나로는 장염을 예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각 단계별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종계장에서는 정밀한 사양관리와 백신으로 난계대 질병을 차단하고, 장염에 내성이 강한 품종의 육종이 필요하다. 부화장에서는 최적의 선별 백신과 엄격한 병아리 선발이 필요하다. 농장에서는 장염 발생의 주요

원인을 철저히 차단하고 적절한 사육 밀도를 유지하여 계군의 건강과 균일도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제부터는 농장자체에서부터 괴사성 장염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첫째, 크로스트리듬균에 대한 효과적인 소독제를 선택하고 백신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둘째, 콕시듐이 상존하는 농장은 사료내 첨가된 예방수준이 방어에 충분치 않을 수 있어 백신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감보로 등 면역억제 질병에 대한 철저한 소독과 예방이 필요하다.

넷째, 병아리 입추 후 10일간의 초기 위장관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수한 초이사를 선택하여 최대한 조기에 급여한다.

다섯째, 계군 건강 유지를 위한 특별관리와 사육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가장 효과적인 항생제 대체제를 찾아 적용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양질의 원료를 이용한 가공 멸균 처리한 사료와 우수한 대체물질이 함유된 사료를 공급할 때 장상피세포 손상을 줄이고 영양소 이용률 증진으로 계사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질병의 완벽한 차단 자체가 어려움이 있지만 발생 시 가축 생산비 증가와 농가 순수익이 감소하는 경제적 손



실을 초래하게 된다. 하지만 육계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환경보전 등을 위해선 사료내 항생제 사용 금지 정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또한 농장에서의 항생제 사용은 수의사의 처방에 의한 허용은 되지만 소비자의 식품 안전성 논란은 지울 수 없을 것이다.

항생제 대체물질 개발은 물론 사양체계 확립, 사료 영양의 한층 발전된 수준의 연구가 필요하며 또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의 육계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항생제 사용을 줄이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로 지금이다.